

# '바다'를 찾아 바다를 건너는 잠녀들

[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한림읍 협재리

등록 : 2007년 01월 07일 (일) 16:19:50  
최종수정 : 2007년 01월 07일 (일) 16:19:5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바다는 있는데 '바다'가 없다.

바다 위를 거침없이 내달려 온 찬바람에 중심을 잡고 서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던 겨울 어느날 찾아간 '협재어촌계' 잠녀들의 바다는 생각보다 멀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아름답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모래바다인 탓에 물건이 크기에 그리 수월하지도 않지만 해수욕장으로 내어주다보니 그 만큼 잠녀들의 바다는 좁아졌다고 했다.



협재바다는 대부분 모래바다로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면서 잠녀들이 물건을 잡는 바다가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은 양식장이 있는 큰고지우.

△바다를 찾아 물으로...

그렇게 바람이 불었던만 새벽부터 바다에 다녀왔다는 박초자 잠수회장(63)은 궁직궁직한 소리를 꺼내 보인다.

물질 매기를 들겠다는 말에 "할말이 별로 없다"는 손사래가 먼저다. 어장 면적은 1544㎡나 되지만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나면 별로 남는게 없다. 금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미 바다 외에는 전복종패 등을 뿌려놓은 큰 고지우(코지)·작은 고지우(\*)가 전부다.

해수욕장을 넘어 정지바다라고 부르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수심이 깊고 여가 많아 상인들이 아니면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곳 역시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양도 공동어장에서의 작업 의존도가 높았다.

요즘은 물건이 많이 나지 않아 작업에 참가하는 잠녀들의 수도 많이 줄었다. 올해 37살인 잠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60대를 훨씬 넘긴 고령이라 먼바다 작업은 못하고 12~15명 정도만이 '고무뿔'을 입는다.

박 잠수회장은 바깥물질로 잔뼈가 굵었다. 20대에는 잠수어선을 이용한 작업을 했었고 10년 전에는 1년의 절반 이상을 일본 바다 속을 뒤지는데 썼다.

“불법이란 것,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잠수기선을 탔다”며 “감시를 피해 몰래 하느라 하루 2~3시정도 밖에 작업을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거제도도 총무로, 보길도로 바깥물질을 했었다.

1980년 중반부터는 꼬박 10년 일본 물질을 했다. “일본 물질을 위해 삼인들이 잠녀들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많았다”며 “3개월을 잡아 일본에 가서 태풍이 불던 3일을 뺀 87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할 정도였다”고 했다.

박 잠수회장은 “여기서 물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벌이가 나아 그때는 그게 힘든 줄도 몰랐다”며 “태풍주의보’가 내려도 바다에 들어가곤 했다”고 말했다.

#### △자연에 순응해 넘침 없이

이 곳에서 태어나 70년이 훌쩍 넘었다는 정순희 할머니(75)의 이야기 역시 바깥 물질로 시작했다. 열아홉 나던 해에 울산 배진에서, 또 서섬에서 힘들게 물질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백사장이 곱게 깔린 바다’외에는 돈벌이를 할 만한 게 없어서다. 소득이 되는 발농사가 활발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바다에 익숙한 탓에 물일이 그다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정 할머니는 “남의 발에 가서 일하려면 꼬박 12시간을 남들과 함께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손이 많이 가는 성계 작업도 물에 들어가는 시간(4~5시간)만큼만 하면 적잖이 돈이 되니 상대적으로 여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좋았던 활소라 가격이 지난해부터 엔화 하락 등으로 떨어진데다 전복종패 등도 잘 자라주지 않으면서 물질 작업이 힘들어졌다. 2005년에는 그나마 상품성이 있어 일당 2만 5000원 벌이는 뿔도 올해는 찾기 어려워졌다. 정 할머니는 “나이가 든 탓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곳에서도 네모 테왁이 눈에 띈다. 옹포 잠녀들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네모 테왁'은 바다 성격에 맞춰 개발된 것이라고 했다. 옹포와 금능, 협재, 월령 바다가 다른 바다에 비해 바람과 물살이 세고 상대적으로 먼바다 작업이 많아 둥근 테왁에 비해 바람 등의 저항을 덜 받고 작업 중에 기대서 쉴 수 있는 네모 테왁을 선호하게 됐다.

경로당이 세워지면서 지금은 자취를 감춘 포제동산(사치동산) 말고 어촌계 이웃에 뚝할망밭은 아직도 정월과 3월 잠녀들이 찾는 곳이다.

'술일'에 맞춰 쌀과 계란, 팔, 소금 등을 준비해 '지드림'을 한다.

박 잠수회장은 "이제야 저마다 기호에 맞춰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에 가지만 아직도 이곳에서 지드림을 하는 잠녀들이 있다"며 "요왕지 4개 외에 바다에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다면 그 수만큼 더 준비를 하는 등 정성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유어선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협재 포구는 그림엽서의 그것처럼 기분좋은 풍경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바다 사람들의 가슴은 스산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하다. 제주의 바다, 바다와 살아왔던 잠녀들이 그런 것처럼, 다시금 이곳 바다가 물건과 사람들로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옹포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